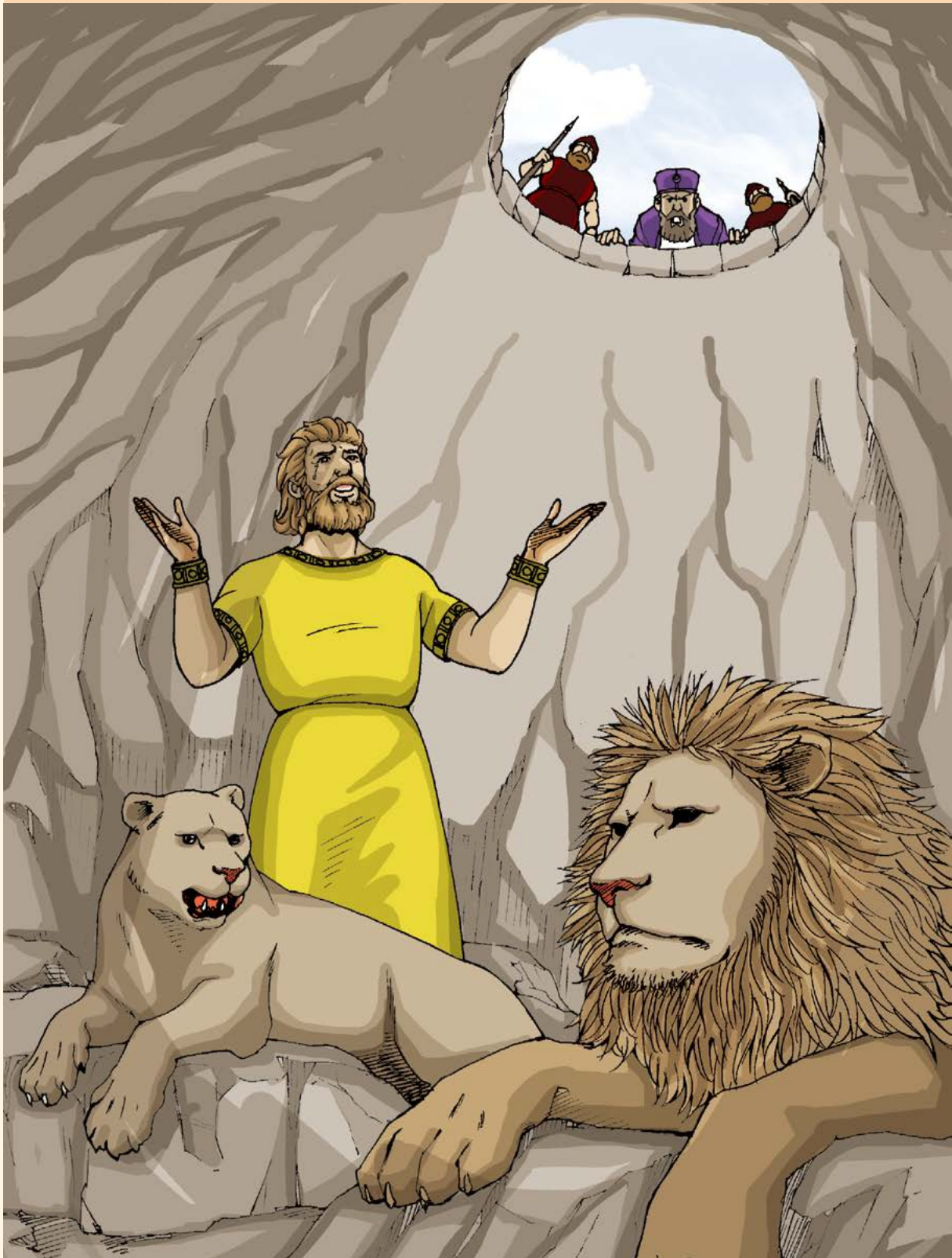


# 20 사자 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

다니엘 6장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내가 아무런 죄도 없으며 왕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나이가 들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성실했으며,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깨끗하고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리오가 메대의 왕으로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다리오 왕은 세 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그중에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보다 뛰어나고 총명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총리들과 방백들은 다니엘을 위협에 빠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위대한 왕이시여! 앞으로 삼십 일 동안 누구든지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는 법을 만드십시오.”

왕은 그것을 허락하여 법을 만들고 온 백성에게 알렸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았지만 항상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창문을 열어 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성경 암송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데살로니가후서 3:3)

이 사실이 왕에게 곧 알려졌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법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은 다니엘을 사자 굴에 넣으라고 계속해서 말하였습니다.

왕은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 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왕은 곧 사자 굴로 가서 슬픈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 주셨느냐?”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내가 아무런 죄도 없으며 왕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은 정말 기뻐하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올렸습니다.

다니엘은 조금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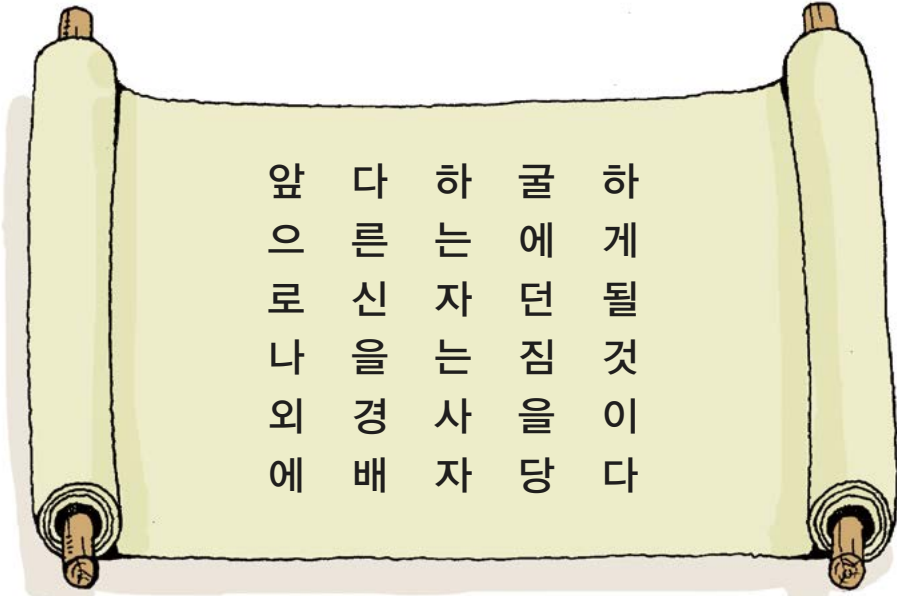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 굴에 넣으라고 말했던 사람들을 사자 굴에 던져 넣게 하였습니다.

사자들은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그들을 잡아먹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다니엘



다니엘은 왕의 조서를 본 후 어떻게 하였나요? (     )

- ① 창문을 닫고 숨어서 기도를 하였다.
- ② 기도를 하지 않았다.
- ③ 평상시와 똑같이 기도를 하였다.



두려워하지 않은 다니엘



다음 빈칸을 채워 보아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다니엘 6:10)



어렸을 때 뜻을 정한 다니엘은 어른이 되어서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들도 자리면서 굳센 믿음으로 생활해요.



##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면 사자 굴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당당히 섬겼듯이, 우리 친구들도 생활 가운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적어 보세요.

보기

드러내지 못한 경우: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밥을 먹을 때 기도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친구들이 당당히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혹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당당히 섬길 때



당당히 섬기지 못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부끄럽거나 사람이 무서워서 못하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께 이길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 알아볼까요



## 용기 있는 믿음

프러시아의 프레드릭 왕은 예수님과 교회를 비웃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 본진랜드 장군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루는 신하들과 같이 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왕은 예수님을 비웃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때에 엄숙한 표정을 한 본진랜드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나 왕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왕 폐하, 대왕께서는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터에서 대왕을 위하여 38번을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 많아 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머지 않아 지금 대왕이 비웃으시는 나의 예수님을 만나 뵈러 가게 됩니다. 늙었지만 영원을 바라보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왕보다 더욱 위대한 분인 것을 압니다. 폐하, 저는 이제 물러가려 합니다.”

이 엄청난 태도와 말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왕이 장군을 즉시 처형시킬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대왕은 떨리는 음성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진랜드 장군, 내가 잘못했소.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용기 있게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난

선생님난

Blank rounded rectangular box for writing.

Blank rounded rectangular box for writing.